

〈1820-21년 나폴리혁명과 카르보네리아〉

정 문 수*

“ The Neapolitan Revolution of 1820-21 and Carboneria ”

〈 目 次 〉

I. 머리말	III. 카르보네리아
II. 나폴리-시칠리아왕국의 복고정책	IV. 나폴리혁명과 「유럽협력체제」 V. 맺음말

I. 머리말

나폴레옹의 몰락과 더불어 프랑스혁명 이래 4반세기에 걸친 유럽의 혁명과 전쟁도 종식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둔 구제도는 강화와 평화유지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20여 년간의 파괴의 쓰레기들을 쓸어내고 깨끗했던 영토는 재분배되어야 했다. 그러나 유럽의 정치가들에게 구제복고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앞으로 유럽에서의 대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쟁은 곧 새로운 혁명을 의미하며, 혁명은 곧 구제도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유럽의 열강들은 프랑스를 적대적인 패전국으로 보지 않고 프랑스가 다시는 침략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1818년에는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4국동맹(Quadruple Alliance)에 프랑스가 참가하는 5국동맹(Quintuple Alliance)이 성립되어 장기간 동안 유럽이 큰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는 이른바 「유럽협력체제」(concert of Europe)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¹⁾ 이와 같이 1815년 이후의 비인체제는 왕정의 복고와, 이 복고세력에 의한 구제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것의 현상유지를 위한 절대주의 세력들의 동맹인 「유럽협력체제」의 성립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비인체제가 지향하였던 유럽지도의 조정은 새로이 출현한 5대강국 즉 러시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문화사 전공)

1) 1815년의 정치가들은 아무리 면밀하게 다듬어진 국제협약이라도 국가간의 대항이 일으키는 긴장과 사정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감당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만큼은 현명했다. 결국 그들은 정기적인 국제회의라는 방법에 의하여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회의에서의 중요한 결정은 '열강'에 의해 내려지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유럽협력체제」는 오늘날의 유엔(U.N)에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모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E. J. Hobsbawm(박현채 외역), 《혁명의 시대》 (한길사, 1984) p. 151.

아, 프로이센의 힘의 균형문제가 상당히 고려되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빼앗겼던 이탈리아의 여러 주들을 되찾았으며 또 합스부르크家の 친척들이 통치하고 있던 북부 및 중부이탈리아의 비교적 작은 공국들에 대한 보호권을 되찾았다. 그리하여 시칠리아와 사르데냐 섬을 제외하곤 프랑스의 영향권에 포함되었던 나폴레옹시대의 이탈리아는 사보야왕조의 사르데냐왕국, 합스부르크-로트링겐家の 토스카나공국, 로마교황지배의 교황국가, 오스트리아 지배하의 롬바르드-베네토왕국, 스페인계 부르봉왕조하의 나폴리-시칠리아왕국(il Regno delle Due Sicilie),²⁾ 그밖에 파르마, 몬페나, 루카공국 등으로 복고되었는 바, 전체적으로 오스트리아의 강력한 영향하에 놓여 있었다.

본고에서 검토하려는 1820-21년 나폴리-시칠리아왕국의 수도, 나폴리에서 발발하였던 카르보네리아(Carboneria)결사 주도의 혁명은 비인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발이었다. 나폴리혁명에 대한 열강들의 태도는 자명하였다. 왜냐하면 나폴리혁명의 성공은 나폴리-시칠리아복고왕정의 붕괴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반도 전역의 재편, 나아가 유럽의 비인체제의 해체를 의미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나폴리혁명을 주도하였던 사회세력은 나폴레옹시대의 부르조아개혁의 수혜자였던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의해 입신출세한 군인 및 관료들과 봉건제폐지와 토지재분배를 통해 자기 이익을 실현시켰던 농촌 부르조아지인 갈란투오미니(galantuomini)였다. 이 때 혁명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변혁을 지지하였던 또 하나의 사회세력은 농민대중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나폴리혁명은 다양한 반절대주의세력의 연합전선의 결과였고 이러한 정치, 사회·경제적인 요구를 응집시킨 단체가 카르보네리아였다. 본고의 목적은 나폴리혁명을 주도하였던 비밀결사인 카르보네리아의 검토와 나폴리혁명에 대한 「유럽협력체제」의 대응을 고찰하는데 있다. 그런데 다알다시피 메테르니히가 주도하였던 「유럽협력체제」의 대응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평가가 존재하지만,³⁾ 반면 나폴리혁명 좌절의 내적인 요인의 규명은 연구가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⁴⁾ 따라서 본고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카르보네리아의 세력확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나폴리-시칠리아왕국에서의 복고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나폴리-시칠리아왕국은 나폴리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의 남부지방과 팔레르모를 중심으로 하는 시칠리아 섬이 합쳐진 정치단위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두개의 시칠리아왕국' 또는 '양-시칠리아왕국'으로 국역하지 않고 나폴리-시칠리아왕국으로 국역하였다. 이하의 나폴리-시칠리아왕국은 II Regno delle Due Sicilie를 지칭한다.

3) 양차대전을 경험한 우리의 현세대는 전면전쟁의 회피라는 국제외교의 기본적인 임무에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1815-48년의 정치가들과 그들의 정책을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나폴레옹패배 이후 1848년 그 자신이 실각할 때까지 전기간을 오스트리아의 수상으로 있었던 메테르니히는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변화를 반대하는 완고한 변화의 敵으로 보던 종래의 경향이 덜해지고, 그 대신 현명하게 안정을 유지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유럽협력체제]와 메테르니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관해서는 H. Hearder, *Italy in the Age of the Risorgimento 1790-1870*, Longman, London, 1986, pp.172-76. Hobsbawm, *op. cit.*, pp.145-152. 참조.

4) 기본적인 사료로는 직접 혁명에 참가하였던 장군들의 체험기인 G. Pepe, *Memorie intorno alla sua vita e ai recenti casi d'Italia*(Paris, 1847)과 M. Carascosa, *I memoires historiques, politiques et militaires sur la revolution de Naples en 1820 et 1821*(London, 1823)가 전부이다. G.T. Romani, *The Neapolitan Revolution of 1820-21*, (Greenwood press, U.S.A. 1978, 초판은 1950)가 유일한 연구서이다.

II. 나폴리-시칠리아왕국의 복고정책

전술한 바와 같이 나폴레옹시대 때의 이탈리아는 사르데냐와 시칠리아섬을 제외한 이탈리아 전역은 크게 3개의 정치단위-나폴레옹왕국, 프랑스제국령, 나폴리왕국-로 구분되어 프랑스의 영향력하에 있었다. 나폴리왕국이 프랑스의 수중에 떨어짐에 따라 시칠리아로 망명갔던 동왕국의 국왕 페르디난도(Ferdinando)는 시칠리아에서 페르디난도 3세로 왕위를 유지하다가, 비인체제 이후 복위된 나폴리에서는 페르디난도 4세로 각각의 영지에서 별도로 군림하였다. 그러나 열강들의 영토 조정 결과 시칠리아와 나폴리왕국이 다시 하나로 병합됨에 따라 그는 나폴리-시칠리아왕국의 국왕 페르디난도 1세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것이 1816년의 12월의 일이었다.⁵⁾

나폴레옹시대 때 시칠리아는 영국, 나폴리왕국은 프랑스의 영향력하에서 각각 자유주의적인 개혁의 실현을 보았다.⁶⁾ 복위 직후의 페르디난도의 옛 나폴리왕국에서의 정책은 메테르니히의 세심한 배려 위에서 기존의 부르조아적인 성향의 제도적인 개혁을 보전하는 비교적 온건한 정책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나폴레옹시대의 토지 소유권의 인정, 군인들의 지위보장, 프랑스통치하에 이루어진 정치 사법 경제적 개혁을 유지하였으며, 동왕국의 나폴레옹시대 때의 협력자들에 대한 처벌도 다른 이탈리아 지역에 비해 미비하였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6년 이후부터 혁명발발 때까지의 복고왕정의 정책은 나폴레옹시대 때의 '부르조아적인 개혁'의 수혜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불만을 누적시켜 나갔다. 복고왕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반체제적인 성향이 강하였던 카르보네리아의 세력은 확산되어 갔다.

페르디난도 1세의 대표적인 복고정책의 하나는 1816년 1월에서 7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던 극우적인 비밀결사 칼데라리(Calderari) 지원을 통한 카르보네리아 탄압이었다. 복고왕정의 경찰창장 카노사(Canosa)가 주도하였던 이 정책은 법질차에 의존하지 않고 백주테러와 같은 방식에 의존하여 카르보네리아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였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던 남부이탈리아의 농민대중의 지지를

5) D. Mack Smith, *A History of Sicily: Modern Sicily after 1713*, Viking Press, New York, p.352.

6) 특히 시칠리아에서는 토착귀족(baroni)들이 페르디난도의 전제에 대항, 1812년에 국왕으로부터 헌법의 수용을 보장받았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약술하면, 페르디난도는 토착귀족이 지배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자의로 1) 귀족에 대한 100% 과세, 2) 공유지의 국왕에게로의 귀속, 3) 왕실재정을 위한 채권의 발행 등을 골자로 한 경제팽창정책을 관철시킬려고 하였다(1811.2.11). 이에 43명의 토착귀족이 중심이 되어 반발하자 국왕은 그 중 주도자 5명을 체포하였다. 이 때 영국의 시칠리아 총독 벤틀크(W. Bentinck)경은 영국군의 철수와 재정지원의 철회를 무기로 국왕을 협박하여 귀족의 요구가 반영된 헌법의 수용을 관철시켰다. 이리하여 봉건제폐지와 자유주의적인 헌법이 논의되고 제정되었다(1812.7.20). 이것이 유명한 1812년의 시칠리아헌법인데 성직자로 구성된 상원과 국왕과 귀족으로 구성된 하원이 있었다. 대륙봉쇄령하에서의 시칠리아의 농업은 부르조아지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선호하였기에 국왕과 귀족의 권력분쟁은 영국이 개입되어 자유주의적인 입법으로 종결되었다. R. Romeo, *Il Risorgimento in Sicilia*, (Laterza, Roma-Bari, 1989) pp. 136-154.

7) Romani, *op. cit.*, p. 5.

언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계획은 오히려 카르보네리아의 세력확대를 초래하고 말았다. "분파전쟁"(War of sects)이라고 불렀던 카르보네리아와 칼데라리 사이의 내전을 방불하였던 분쟁은 국가의 위신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카르보네리아의 결정적인 취약점이었던 조직의 단결과 통일성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고 말았다. 더욱이 두 분파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았던 지식인들은 보수적인 칼데라리보다는 '진보적인' 카르보네리아를 선택하였다. 한편 나폴레옹시대 때의 봉건제폐지와 토지재분배를 통해 자기이익을 실현시켜나갔던 부르조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카르보네리아에 가입하거나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왜냐하면 칼데라리의 전면적인 승리는 자신들의 혜택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이었다.⁸⁾

카노사의 실각 이후부터 혁명 발발까지 복고왕정이 취한 정책은 반동과 자유주의 사이를 절묘하게 줄타기 하는 이른바 「아말감정책」(amalgamandoli)이었다.⁹⁾ 재무장관 루이지 데 메디치(Luigi de' Medici)가 주도하였던 이 정책은 왕권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어떠한 헌법의 수용도 확실하게 거부하였지만, 반체제적인 비밀결사의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하였다. 또 이 정책은 나폴레옹시대의 군인, 관료였던 이른바 「무라주의자」(Muratiani)들을 중용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꾀하였던 반면, 부르주와자들에 대해서는 프랑스통치 기간 중 상실하였던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여 주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아말감정책과 무라주의자들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여 보자. 1817년 7월 오스트리아군이 공식적으로 철수하자, 복고왕정은 자체의 군대를 재조직하여야 했다. 이 때 정부는 신분보다는 인물 본위의 인사정책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나폴레옹시대 때 고급장교로 복무한 바 있었던 무라주의자들이 군 요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¹⁰⁾ 무라주의자들은 능력과 재능위주의 사회를 지지하였지만 국왕에 대한 충성심은 갖고 있었다. 반면 귀족출신의 군인, 관료들과는 구별되게도 그들은 맹목적인 왕정의 지지자라기보다는 신분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입헌군주정의 지지자들이었다. 따라서 국왕에 대한 충성심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라주의자들은 "헌법만세! 국왕만세!"라고 외쳤던 카르보네리아의 동맹세력이 될 수도 반대세력이 될 수도 있었다.

다음으로 아말감정책과 농촌부르조아지와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보자. 메디치의 경제정책은 특히 중·소부르조아지에게 불리하였다. 이 시기에 문제가 된 토지세(imposta fondiaria)는 프랑스 통치기간 중에 도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박토에는 비과세한다는 예외 조항 때문에 조세에 대한 저항이 약했다. 그러나 메디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당시 중·소부르조아지의 고통에 적절한 대응을 세우지도 않았다. 즉 경제봉쇄가 해제되어 나폴레옹시대와는 다르게 러시아의 오테사(Odessa)로부터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던 바, 정부는 관세정책이나 세금감면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토지세를 강화하고 그것의 엄격한 징세를 고수하였던 것이다.¹¹⁾ 메테르니히조차도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

8) *Ibid.*, pp.16-18.

9) amalgam이란 수은과 다른 금속의 합금을 말하는데, 반동도 아니고 자유주의적인 정책도 아닌 중도적인 혼합정책을 amalgamandolci라 한다.

10) 예를 들어 페페(G. Pepe)는 1818년과 1820년에 제 3군단장을 역임하였고, 카라스코사(Carrascosa)는 1818년까지 제1군단장을 역임하고 그 후에는 보병 사령관직을 맡았다. 또 콜레타(Colletta)는 1818년 이후 제 1군단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모두 '무라'시대(1808-15) 때 군인으로 근무하였었다. Romani, *op. cit.*, 주) 43 참조.

11) *Ibid.*, p. 46.

다. "혁명은 부분적으로는 메디치의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초래되었다. 메디치는 세입이라는 측면에서만 국가를 경영하였기 때문에 그는 신민들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상한을 초과하여 세금을 부과하였고, 활의 시위를 과도하게 당김으로써 활 자체를 못쓰게 만들었다."¹²⁾

한편 메디치는 1818년과 1819년에는 각각 로마교황청과의 협약과 페르디난도법전을 통해 교회의 특권을 부활시켰다. 즉 종교기관의 자산매각의 교황청의 승인, 왕국내에 다수의 수도원 재건 약속, 종교기관의 부동산 소유 인정, 교회의 재판권 승인, 교회의 출판물 검열권의 부활 등이 보장되었다.¹³⁾ 이러한 노골적인 복고정책은 토지의 사유화와 자유로운 매매를 가로막았던 일체의 장애를 없애 나갔던 나폴레옹 시대의 근대적인 개혁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나폴레옹 시대 때의 개혁을 통해 자기 이익을 관철시켰던 농촌부르조아지는 정치적, 경제적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¹⁴⁾ 이들은 혁명 직전 카르보네리아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았으며, 복고왕정에 반대하는 다른 세력까지도 규합하고자 동분서주하였다.

농민들의 경우는 나폴레옹시대 때의 근대화과정 특히 토지재분배를 통해 공동체적 용익권을 상실하였고, 토지도 분배받지 못한 채 생존권을 위협받았다.¹⁵⁾ 따라서 농민들은 아말감정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시대의 개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말하자면 농민들은 나폴레옹시대의 '부르조아적인 개혁'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현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지주들-귀족이든 부르조아지든-과는 구별되게도 생존권의 보장이 현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었다. 농민들은 중세적인 공동체적인 용익권의 보장 혹은 철저한 토지분배가 카르보네리아의 변혁운동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런 이유로 카르보네리아는 급속히 신장하여 갔다. 그리하여 나폴리 근처의 살레르노(Salerno), 아벨리노(Avellino)의 카르보네리아 지부는 이러한 불만을 체제변혁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봉기는 준비의 부족과 명백한 정치적 목표,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을 갖지 못해 번번히 불발로 끝났다.¹⁶⁾

이러한 카르보네리아에게 결정적인 계기를 부여하였던 것은 1820년 1월에 일어난 스페인에서의 입헌 혁명이었다. 1820년 1월 1일 스페인군대는 카디체(Cadice)에 모여 리에고(Riego)대위, 퀴로가(Quiroga)대위 및 7명의 민주적 인사 지휘하에 1814년의 페르디난도 7세 헌법의 철폐와 1812년의 스페인헌법의 수용을 요구하였다.¹⁷⁾ 스페인에는 비밀조직으로 장교동지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이 장교들

12) 메테르니히가 Stadion에게 보낸 1821년 3월 10일자 편지(*Ibid.*, p. 22)

13) C. Francovich, "L'azione rivoluzionaria risorgimentale e i movimenti delle nazionalit in Europa prima del 1848" in Marzorati(ed.) *Nuove gestioni di storia del Risorgimento e dell'unita d'Italia*(Milano, 1990, 이하 N. Q.로 약기), p. 470.

14) 나폴레옹시대 때 한사상속제(Fiedi commissum), 장자상속권(primogenitura), 그리고 영구양도(Mortmain)의 폐지, 교회토지의 비교회화와 매각, 광대한 공동체의 집단소유지인 공유지, 공유목초지, 공유임야 등의 개인소유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회세력은 농촌 부르조아지였다. 줄고, <이탈리아통일운동을 보는 하나의 시각> 《釜大史學》14집, (1990), p. 188.

15) R. Villari, "L'economia degli Stati italiani dal 1815 al 1848" in N. Q. pp. 607-08.

16) 1818년과 1819년 살레르모에서는 불발로 끝난 봉기의 시도가 있었으며, 1820년 이후에는 카르보네리아 세력의 중심이 아벨리노로 이동되었다. Romani, *op. cit.*, pp. 22-26.

17) G. Candeloro, *Storia dell'Italia Moderna*, vol. II, Feltrinelli, Milano, 1988, p. 74.

은 「혁명선언」(pronunciamento) 후 그들의 연대에 대해 자기들을 따라 반란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연대는 그 명령에 따랐던 결과 3월에 혁명을 성공시켰다.¹⁸⁾

그런데 나폴리-시칠리아왕국은 동일한 스페인계 부르봉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더욱이 「유럽협력 체제」는 스페인혁명에 대해 신속한 개입을 보류하고 있었다.¹⁹⁾ 카르보네리아는 열강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무라주의자에서 농민대중에 이르는 다양한 복고왕정에 대한 불만세력들의 공통의 정치 슬로건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헌법만세! 국왕만세!"로 압축되었다. 이리하여 1812년 스페인헌법의 수용 요구는 1820년대 반비인체제운동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게 된다.²⁰⁾

그러면 1820년 나폴리혁명을 논하기 전에 혁명의 주체였던 카르보네리아의 결성 배경과 조직 그리고 그것이 남부이탈리아에서 가졌던 사회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자.

Ⅲ. 카르보네리아

카르보네리아의 기원과 성립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지만,²¹⁾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나폴리왕국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가 확립되었을 때인 1806년 이후에 프랑스에서 나폴리왕국으로 유입되어 온 비밀결사가 남부이탈리아의 실정에 맞게 변형된 것이 바로 카르보네리아라는 것이다.²²⁾ 즉 반나폴레옹계 프랑스장교 브리오(Pierre Joseph Briot)라는 인물이 1806년 나폴리왕국에 프리메이슨과 유사한 비밀결사 샤르보네리(Charbonnerie)의 명칭과 형태²³⁾를 소개한 것이 카르보네리아의 기원과 성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구 자코뱅당원이었던 브리오는 프랑스의 동부지방 프랑슈 공페(Franche Comté)의 탄광원들의 비밀결사인 샤르보네리의 회원이었는데, 통령정부하에서 500인회(conseil des cinq-cents)의 좌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지지하였던 열성 공화주의자였다.²⁴⁾ 1799년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크게 실망하였던 그는, 1800년부터 베장송(Besançon) 제독의 비서로 활동하다가 1802년에는 엘베섬에서 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1806년 조셉 보나파르트의 초청으로 나폴리왕국을 방문하였을

18) Hobsbawm, *op. cit.*, pp.168-69.

19) Candeloro, vol I. , p.74.

20) A. Gramsci, *Il Risorgimento*, Riuniti, Torino 1977, p.165.

21)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의 소개와 검토는 R. Jhon Rath, "Carbonari: Their Origins, Initiations Rites, and Aim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69, 1963, pp.353-56 참조.

22) J.M. Roberts, *The Mythodology of the Secret Societies*, (London, 1972) p. 284.

23) 숯구이공들의 준-공식적인 조합을 'charbonnerie'라 불렀으며, 조합원들 상호간의 호칭은 '의좋은 사촌'(bons cousins)이었다. 또 조합원은 정당원과 견습당원으로 대별되었다. Charbonnerie는 중세적인 동업조합인 compagnonnage의 제도와 관련이 있고 儀式은 크리스트 교적인 취향이 강하였다. 조합원들은 '탄판매장'(ventes)으로 불렸던 지부에서 만났으며 종종 잡업장인 숲 속에서도 집회를 가졌다. *Ibid.*, pp. 183-84.

24) Francovich, *op. cit.*, p.463.

때, 브리오노 동왕국에서 구 자코뱅 동지였던 루시앙 보나파르트(Lucien Bonaparte)와 살리체띠(Saliceti)와 조우하였다. 루시앙 보나파르트와 살리체띠는 1799년 나폴리에서의 자코비노혁명 실패 이후 프랑스로 망명하였다가 나폴리왕국에 대한 프랑스지배가 다시 확립된 1806년에 귀국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폴리의 자코비노(Jacobino, 이탈리아의 자코뱅주의자)는 농민들이 반혁명에 가담하였던 1799년의 실패²⁵⁾를 교훈삼아 농민대중을 포함한 혁명조직의 건설을 모색하였다. 말하자면 브리오노 프리메이슨적인 비밀결사 샤르보네리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루시앙 보나파르트와 살리체띠는 샤르보리조직을 남부이탈리아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 카르보네리아결사였다.²⁶⁾

조셉 보나파르트(1806-08)와 요하기노 무라(1808-14) 치세 때 카르보네리아는 반나폴레옹적인 공화주의를 표방하면서, 1812년 이후에는 자유주의적인 입헌주의운동을 표방하면서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카르보네리아가 급속도로 세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은 절대주의와 교회, 귀족에 반대하는 세력의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던 1815년 이후의 일이었다.

카르보네리아는 프리메이슨과 마찬가지로 가맹할 때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그리고 상징성을 띤 의식을 치루었다. 그들이 사용하였던 용어도 숲구이공들의 의식세계를 반영한 상징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사회를 삼림(bosco), 회합장소를 오두막(baracaa), 세포인 지부의 조직을 탄판매장(vendita)이라 칭하였고, 의사봉으로 손도끼(acceta)를, 탁자로는 나무의 그루터기(ceppo)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입당 의식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였기 때문에 표준적인 사례를 입증하기는 힘들다. 단지 입당의식이 윤리적, 종교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특히 크리스토포적인 신앙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⁷⁾

일반적으로 카르보네리아는 3단계로 구분되는 위계제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 즉 당원은 견습당원(Apprentista), 정당원(Maestro), 간부당원(Gran Maestro)으로 대별되었으며,²⁸⁾ 각 단계에 상응하는 교의문답서가 있었다. 제 1위계에는 주로 인도주의적인 종교 윤리적인 강령, 제 2위계에는 민족독립과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적 강령, 제 3위계에는 농지균분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평등의 달성과 민주공화국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강령이 있었다.²⁹⁾ 비밀결사의 속성상 결사원은 자신이 속한 위계의 강령과 조직의 직접적인 상관 이외에는 알 수 없었고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복종하여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카르보네리아가 남부이탈리아에서 가졌던 사회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25) 1799년의 자코비노혁명 당시, 추기경 루포(Ruffo)가 이끄는 '산페디스따'(sanfedista)결사는 국왕과 카톨릭 신앙의 이름하에 농민들을 반혁명측으로 조직하는데 큰 역할을 맡았다. 루포는 칼라브리아에서 지원자를 모아 나폴리로 원정을 감행하여 자코비노부르조아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R. Luraghi, "Politica, economia e amministrazione nell'Italia napoleonica" in N. Q. p. 358.

26) Roberts, *op. cit.*, pp. 285-86.

27) Rath, *op. cit.*, pp. 357-62.

28) Candeloro, *Storia dell'Italia Moderna*, vol. I, p. 364.

29) Francovich, *op. cit.*, p. 464. 프란코비치는 카르보네리아의 이러한 강령은 아담 바이스하우프트(Adam Weishaupt)의 일루미나띠(Illuminatti)의 영향이라고 주장, 카르보네리아가 계보상 일루미나띠에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위의 논문, pp. 462-63) 그러나 일루미나띠도 결국 프리메이슨의 일 분파이기 때문에 카르보네리아의 강령은 프리메이슨의 영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장 돋보이는 점은 부르조아지와 농민대중간의 연합전선의 형성을 들 수 있다. 1799년의 자코비노혁명이 농민의 反부르조아지 운동에 의하여 좌절되었던 경험-이른바 루포의 산페디스 따운동-에서 부르조아지는 농민의 일정한 조직화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였고 이 농민의 조직화가 카르보네리아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카르보네리아가 북이탈리아의 비밀결사³⁰⁾들과는 다르게 종교적 색채를 띤 크리스티교의 천년왕국설이나 다분히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던 것도 남부의 농민들을 포섭 대상으로 하였던 비밀결사였다는 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³¹⁾

그런데 부르봉복고체제하에서의 부르조아지의 목표는 나폴레옹체제 때 얻었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었고,³²⁾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의 확립이었다. 그것은 단원제의 의회와 유산시민의 선거권을 명시한 1812년의 스페인헌법의 요구로 압축되었다.³³⁾ 그러나 인구의 약 90%³⁴⁾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의 관심사는 입헌주의가 아니라 토지문제였다. 농민들은 공동체적 용익권의 부활 혹은 철저한 토지의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었고³⁵⁾, 이러한 토지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부르봉의 복고정부라는 부르조아지의 선전에 영향을 받아 카르보네리아에 결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카르보네리아는 농민의 조직화에 성공하여 혁명 직전에는 약 60만명에 이르는 회원을 확보하였다.³⁶⁾

부르조아지 중의 일부 급진파는 토지없는 농민에게 토지분배를 위한 "토지균분법"(Legge agraria)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어떤 지부에서는 "농지균분법의 집행과 선전을 위해 나의 모든 정력과 생애를 바칠 것"³⁷⁾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농지균분법의 실현은 프랑스 통치 10년간 영지매매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늘려 나갔던 부르조아지의 다수파인 농촌부르조아지(갈란뚜오미니)에게서 동조를 얻기는

30) 아델피아(Adelfia), 부오나로띠가 주도하였던 Sublimini Maestri Perfetti 등이 대표적인 비밀결사였다. Francovich, *op. cit.*, pp.164-65.

31) 심지어는 교황 피오7세가 카르보네리아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나돌았다. G. Procacci, *Storia degli Italiani*, Laterza, Roma-Bari, 1980, vol. II, pp.322-23.

32) 나폴리왕국의 경우, 1806년 8월 2일의 봉건제폐지령과 9월 1일 토지재분배령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봉건제폐지와 국유지의 매각이 실현되었다. 먼저 전자의 과정, 즉 영주권의 폐지, 십일조 및 봉건공납의 폐지를 통해 귀족을 비롯한 특권계급이 타격을 받았으며, 후자의 과정, 즉 교회 및 공동체에 속한 토지의 사유화를 통해 특권계급은 물론 농민까지도 타격을 받았다. Luraghi, *op. cit.*, pp. 372-75.

33) Candeloro, vol. II, pp.79-81.

34) 18세기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농민들의 구성비는 롬바르디아가 85%, 베네치아가 72-80%인 반면에 남부의 칼라브리아와 루카니아는 90%이상이었다. L. Dal Pane, *Storia del Lavoro dagli inizi del secolo XVIII al 1815*(1958) p.135; R.S. Eckers, "The South-North Differential in Italia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 X I (1961), p.290.

35) 나폴리왕국에서의 토지재분배가 농민들에게 토지를 소유하도록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세적인 공동체적 용익권의 상실로 귀결되었다.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에보리(Eboli)지역에서의 1753년과 1816년의 토지소유자 분포이다. 1756년 에보리지역의 경우 농민 224(세대주)명이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1816년에는 202명으로 감소한다. 이 기간 중 전체 인구가 3,107에서 4,192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몰락은 한결 두드러진다. P. Villani, *Mezzogiorno tra riforme e rivoluzione*, Laterza, Bari, 1962, pp.176-77.

36) 나폴리혁명 전야에 당원의 수는 약 30만명에서 6십4만2천명 사이로 추정된다. Rath, *op. cit.*, p.370.

37) Romani, *op. cit.*, p.12.

힘든 소수의 주장에 불과하였다.³⁸⁾ 따라서 부르조아지와 농민대중 사이의 연대는 회원의 숫자만큼 굳건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카르보네리아 지도부와 무라주의자들과의 부분적인 동맹을 들 수 있다. 무라주의자들이란 앞서 언급한 바있듯이 나폴레옹체제 하에서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아 군장교나 관료로 발탁되었던 프랑스 통치의 중추적인 인재들이었다. 그들은 요하키노 무라가 프랑스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을 선언하고 헌법을 수용한다면, 나폴리왕국의 국왕, 무라를 이탈리아전역의 입헌국왕으로 옹립하려고 시도하였던 바, 기본적으로는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지지하였던 행정과 실무의 경험자였다.³⁹⁾ 무라주의자들의 이런 구상은 무라의 현상유지적인 정책 때문에 좌절되었고, 복고왕정 이후 그들은 정국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무라주의자들은 페르디난도 1세의 아말감정책으로 다시 고급군인과 관료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복고왕정 이후에도 일정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무라주의자들의 정치 성향을 따지자면 그들은 입헌군주주의자요 온건한 자유부르조아지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었다. 이들은 적절한 감동성을 가진 정부에 의한 개혁과 자유주의적인 세력의 외교적인 지지에 힘입어 페르디난도를 이탈리아의 국왕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들이 구상하였던 헌법은 1812년의 스페인헌법보다는 온건한 1814년의 루이 18세의 헌법이었다. 왜냐하면 후자의 양원제의 입법부가 전자의 단원제의 입법부보다 귀족에 대해 타협적인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이었다.⁴⁰⁾ 따라서 그들의 혁명에 대한 태도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1820년 마침내 혁명이 발발하자, 그들은 카르보네리아의 1812년 스페인헌법의 수용요구에 대해 가능하면 1814년의 프랑스헌법의 수용요구로 대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점에서 무라주의자들의 군주정의 '제한' 정도는 상당히 온건한 것이었다. 한편 그들은 국왕이 어떠한 헌법의 수용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카르보네리아의 체포와 진압을 명령하였을 때, 국왕의 신하이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카르보네리아의 대열에 동참하였던 것이다.⁴¹⁾

한편 칸델로로의 지적에 따르면, 카르보네리아의 핵심 사회세력으로는 지주, 상인, 전문직업인, 예술가 등이 있었고 특히 하사관과 하급장교 그리고 하급 성직자가 열성당원이었다. 이들은 신분제의 부정과 봉건사회의 붕괴를 목표로 하였으며 동시에 이탈리아 제연방의 통일과 독립을 원하고 있었다.⁴²⁾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카르보네리아는 급진적 공화주의자에서 입헌군주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또한 무라주의자에서 농민대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력들의 집합장이었다. 이처럼 카르보네리아는 복고왕정에 반대하는 연합전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820년 7월 나폴리 근방 노라의 결사원에 의해 시작되었던 혁명은 간단하게 성공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성공은 곧바로 카르보네리아 내부의 모순들을 명백하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사회세력들의 혁명 이후의 사회경제적인 요구가 각각 달랐고 심지어 대립되기까지도 하였기 때문이었다.

38) *Ibid.*

39) *Ibid.*, pp.9-10.

40) 1814년의 프랑스헌법은 양원제의 입법부를 두고 있는데 상원은 상속이 가능하고 국왕이 임명하였으며, 하원은 유산시민의 제한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다. Francovich, *op. cit.*, p.472

41) Romani, *op. cit.*, p.34.

42) Candeloro, vol. II, p.78.

IV. 나폴리혁명과 「유럽협력체제」

혁명은 노라 지부의 카르보네리아 결사원 30명과 동소재의 기병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127명이 켈기 함으로써 시작되었다.⁴³⁾ 이들은 “농민만세 힘차게, 자유만세, 헌법만세”(Viva paesani, allegri, viva la libertà e la Costituzione)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카르보네리아의 세력이 가장 강력하였던 아벨리노로 행군하여 갔다. 이 때 아벨리노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 3 부군단장 데 콘칠리(De Concilj)는 적극적으로 혁명군중을 저지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면서 나폴리정부의 지시를 기다렸다. 한편 봉기소식을 접한 메디치는 혁명의 초동단계에서 신속한 진압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3일 이후 오스트리아 장군 누젠트(Nugent)가 카라스코사(Carrascosa) 장군으로 하여금 나폴리에서 아벨리노 방향으로, 한편 뉴지안테(Nugiante)와 캄파나(Campana) 장군으로 하여금 살레르노에서 아벨리노 방향으로 진압의 명령을 내렸으나 그동안 전략적 요충지였던 몬테파르떼가 카르보네아의 수중에 떨어짐으로써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⁴⁴⁾

5일과 6일 사이에 나폴리에 체류 중이던 제 3군단장 페페(G. Pepe)장군이 나폴리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2개의 기병 보병사단을 이끌고 아벨리노의 혁명군에 합류하여 혁명의 선두에 섬으로써 사실상 혁명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리하여 페르디난도 1세는 혁명의 진압을 포기하고 아들 칼라브리 아공 프란체스코(Francesco)에게 섭정을 지시하였고, 프란체스코는 7월 7일 헌법의 수용을 골자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나폴리-시칠리아왕국의 헌법은 1812년에 스페인왕국이 채택하였고 그 해 3월 교회의 승인을 받았던 것과 동일한 헌법이 될 것이다; 헌법에 따라 소집될 국민의회가 왕국의 특수한 실정에 맞게 헌법을 조율하도록 일임하겠다.⁴⁵⁾

9일 혁명세력은 나폴리 시가를 행군, 승리를 자축하였다. 시가행진은 카르보네리아 결사원과 무라주의자들이 주도하였지만, 농민대중들도 혁명 이후의 사회변화에 기대를 걸고 환영하였다.

그런데 시가행진 직후 섭정 프란체스코가 임명한 새로운 내각은 모두 무라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즉 미릴레(O. Mrmile, 외무상), 주를로(G. Zurlo, 내무상), 리치아르디(F. Ricciardi, 사법상), 카

43) 노라 지부의 간부당원은 미니키니(L. Minichini)였다. 그는 다른 지부와의 연락과 연계를 통해 카르보네리아가 군사저항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 노라 근처에 수년 전부터 주둔하고 있던 부르봉의 기병대 군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이 부대의 초급장교들을 결사원으로 포섭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 모렐리(M. Morelli) 대위와 실바티(G. Silvati) 중위이다. 이들이 노라봉기의 선두에 섰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Romani, *op. cit.*, pp. 37-39.

44) 아벨리노로부터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던 몬테포르테는 카르보네리아가 나폴리 정부군이 아벨리노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시켰던 전략지였다. Candeloro, *op. cit.*, p. 76.

45) A. Alberti(ed.) *Atti del Parlamento delle due Sicilie, 1820-21*, Bologna, (1926-31) vol. I, pp. 12-13.

라스코사(N. Carrascosa, 국방상), 마체도니오(L. Macedonio, 재정상), 지우제페 데 토마시스(G. De Thomasis, 해운상), 구리에모 페페(G. Pepe, 참모총장), 이들 모두가 무라주의자들이었다. 말하자면 카르보네리아 결사원은 단 1명도 신내각에 들지 못했던 것이다. 또 같은 날 프란체스코는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입법을 추진할 15인의 임시 혁명위원회(Giunta)를 구성하였는데 이들 역시 무라주의자들이 거의 독식하였다.⁴⁶⁾ 7월 13일 페르디난도 1세는 내각과 준파 위원을 배척시킨 가운데 헌법의 수호와 보전을 선서하였다. 이리하여 혁명은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카르보네리아는 운동의 선두에 섰지만 혁명정부의 요직은 무라주의자들이 차지하였고 또 이들이 지향하는 개혁의 정도가 달랐던 바, 비밀결사와 신정부는 혁명 성공 후 대립하게 된다. 먼저 카르보네리아는 1812년 스페인헌법의 수용을 관철시키고자 했으며, 일부 급진파는 스페인헌법의 수용을 최종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민주사회와 사회혁명의 출발점으로 인식하였다.⁴⁷⁾ 반면 무라주의자들은 과도한 민주화에는 반대하였고 1812년 스페인헌법보다 온건한 1814년의 프랑스헌법의 수용을 요구하였다. 이리하여 아벨리노에 근거하고 있는 카르보네리아세력과 나폴리 신정부는 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칸데로로는 나폴리혁명이 스페인의 경우처럼 단순한 "군사혁명선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정치·경제적인 수도가 중심이 된 혁명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지방(아벨리노)이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한 최초의 운동이라는 것이다.⁴⁸⁾

카르보네리아와 무라주의자들의 대립 이외에 나폴리정부에 타격을 주었던 것은 팔레르모에서 발발하였던 "시칠리아 분리주의운동"이었다. 나폴리혁명의 성공 소식에 고무된 팔레르모의 시민들이 7월 16일 수호신 聖 로잘리아(Santa Rosalia) 축제 때, 시민 중 일부는 1812년의 시칠리아헌법의 수용을 요구하며, 또 일부는 1812년의 스페인헌법의 수용을 요구하며 나폴리정부로부터의 독립 내지 분리를 요구하였다. 전자는 토착귀족과 농촌부르조아지가, 후자는 길드적 성격이 강한 72개의 직공조합(Maestranze) 대표들이 각각 중심세력이었다.⁴⁹⁾

그러면 팔레르모는 무엇 때문에 나폴리정부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였는가에 대해 검토해 보자. 정치적으로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 즉 나폴레옹시대 때 팔레르모는 시칠리아의 수도였지만 비인체제하에서는 나폴리에 예속된 일개 지방도시로 전락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있었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시칠리아는 대륙봉쇄하의 곡물수출을 통해 상당한 혜택을 보았다.⁵⁰⁾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농업경제의 침체로 곡가와 地價가 전반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었으

46) 장군, 법률학자, 귀족, 주교, 왕국에서 신망있는 자들로 개명귀족과 온건 부르조아지가 주류였다. Candeloro, vol II. , p.77.

47) Francovich, *op. cit.*, pp.472-73.

48) Candeloro, vol II. , p.78.

49) Romeo, *op. cit.*, pp.164-65.

50) 시칠리아의 경우, 전 토지의 90% 이상이 나폴리로부터 시칠리아의 분리를 요구한 농촌부르조아지의 수중에 있었다. 사실상 이탈리아 통일을 향한 전진을 지도하고, 규제한 사회계급인 이 농촌부르조아지가 바로 그 농업적인 지향 때문에 교조적인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향으로 기울었고, 그러한 경향이 또한 이탈리아통일에 대한 영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탈리아 공업화를 뒷걸음치게 하였다. E. Sereni, *Il Capitalismo nelle Campagne* (1948) pp. 175-76.

며, 또 봉건악법의 부활되었던 바, 토착귀족, 농촌부르조아지, 농민들 모두는 복고시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분리주의운동"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⁵¹⁾ 이리하여 7월 18일에는 9명의 토착귀족과 9명의 농촌부르조아지로 구성된 임시 혁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 준따는 72명의 직공조합의 동의를 받아 권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팔레르모에서의 반란이 시칠리아 분리의 요구로 집약되었을 때, 시칠리아 섬의 주요 도시들은 그동안의 팔레르모의 독주에 반발하여 오히려 나폴리정부로의 귀속을 주장하여 시칠리아 전체가 나폴리로부터의 분리와 연합으로 대별되어 내전상태로 들어갔다. 팔레르모를 제외한 시칠리아 6대 도시중 지르젠띠(Girgenti)만이 팔레르모의 시칠리아 분리주의에 동조하였고 나머지 5개의 도시-메시나(Messina), 카파니아(Catania), 시라쿠사(Siracusa), 아그리젠또(Agrigenti), 트라파니(Trapani)-는 모두 나폴리로의 연합을 주장하였다.⁵²⁾ 팔레르모의 준따는 시칠리아 내부의 反팔레르모적인 지방도시를 응징하기 위해 직공조합 및 민중들의 무장세력을 이용하였다.

한편 나폴리정부는 유럽의 열강들과 또 내부의 카르보네리아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칠리아와 장기간의 전쟁을 치뤄야 하는 곤경에 빠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내각은 플로레스타노 페페(F. Pepe 참모총장의 친동생)에게 7천명의 병력을 주어 시칠리아반란을 평정토록 하였다(1820. 8. 31). 우여곡절 끝에 10월 5일 페페는 팔레르모의 준타와 협정-분리주의의 포기와 자치허용이 골자-을 성사시키나, 직공조합 및 무장한 민중세력이 불만을 품고 페페와 준타에 대해 항전을 계속하여 이 협정이 무효가 되고 페페 대신에 콜레따가 파견되어 반란을 진압하였다.⁵³⁾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나폴리의 신정부는 혁명을 성공시킨지 4개월째 접어드는 10월까지 시칠리아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본토에서는 무라주의자들과 카르보네리아간의 대립이 점점 더 격화되어 가고 있었다. 헌법에 따라 국민회의가 10월 1일 소집되었는데 시칠리아를 제외한 나폴리왕국지역의 의원 72명 중 카르보네리아는 겨우 17명을 대표로 내고 있었고 나머지는 무라주의자들로 여전히 무라주의자들이 입법부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⁵⁴⁾

이제 나폴리혁명이 좌절되었던 이유를 외적인 요인에서 고찰하여 보자. 「유럽협력체제」는 이미 아아헨(1818)회의와 칼스바트(1819)회의에서 자유주의운동에 대한 공동의 대응에 합의한 바가 있었고, 따라서 혁명에 대한 "간섭의 원칙"(Principio dell'intervento)은 확고부동한 것이었다.⁵⁵⁾ 메테르니히는 이미 1815년 1월 오스트리아와 나폴리의 부르봉왕조간의 상호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었다. 나폴리혁명이 발발하자 메테르니히는 우선 이 혁명의 여파가 롬바르도-베네또왕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그는 1820년 7월 23일 교황령에서 협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나폴리왕국으로의 개입의 정

51) Romeo, *op. cit.*, pp. 161-65.

52) *Ibid.* pp. 68-70.

53) Romani, *op. cit.*, pp. 136-37.

54) 이 당시 카르보네리아는 소금가격의 50% 인하와 양심수의 석방문제로 무라주의자들과 대립하나, 세 부족으로 개혁을 관철시키지 못한다. 당시 나폴리-시칠리아왕국의 인구는 6백 73만 4천 여명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총 98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약 7만명에 1명의 대표가 선출되었다. 26명이 시칠리아 몫이었는데 이 중 팔레르모의 6명과 지르젠띠의 3명은 선출되지 않았다.

Alberti, *op. cit.*, pp. 35-45.

55) Francovich, *op. cit.*, p. 474.

당성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⁵⁶⁾

그런데 러시아와 프랑스는 나폴리혁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우선 이들 두 국가는 오스트리아의 독주에 대해 견제하기를 원하였으며 이 나폴리혁명이 오스트리아의 대이탈리아 통솔권의 약화로 이어지길 바랐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는 국왕의 권위가 유지되는 선에서의 입헌혁명은 용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나폴리-시칠리아왕국이 1814년의 루이 18세의 프랑스헌법을 기초로 한 입헌군주정으로 혁명이 마무리되길 바랐다. 반면 영국은 국내의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을 의식해서 혁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없었다.⁵⁷⁾ 또 외교적으로 볼 때 영국을 제외한 4개국이 공동으로 이탈리아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따라서 영국의 입장은 오스트리아가 유럽질서의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탈리아문제를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었다.⁵⁸⁾ 프로이센은 처음부터 오스트리아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한편 페르디난도 1세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열강들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도의 외교적인 술수를 이용하였다. 나폴리 신내각의 외무상 캄포키아로가 "페르디난도 1세는 '위로부터의' 개혁의 일환으로 1812년 스페인헌법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신내각을 구성하였다"고 발표하고 유럽 각 지역의 나폴리파견 대사들로부터 충성서약을 받았다. 말하자면 캄포키아로는 헌법의 수용과 신내각의 조각은 평화적인 개혁임을 강조, 혁명정부에 대한 유럽열강들의 내정간섭을 배제하고 동시에 외교적인 지지를 얻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국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비엔나의 루포(A. Ruffo)와 빠리의 카슬레치칼라(Castelcicala)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해임되었는 바, 이는 나폴리 신정부와 국왕의 입장이 상반된다는 사실을 유럽의 열강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⁵⁹⁾

마침내 메테르니히는 스페인헌법의 수용이 국왕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로 알렉산드르를 설득, 러시아의 동조하에 1820년 10월 2일 실레시아의 트로파우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열강들의 무력개입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⁶⁰⁾ 이제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이 나폴리혁명에 대한 개입을, 프랑스와 영국이 소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 때 프랑스는 나폴리외상의 주장과 빠리주재 나폴리 대사의 주장으로 애매한 입장에 있었다.⁶¹⁾ 반면 영국은 여전히 집단적인 대응을 탐탁잖게 여기고 있었다. 메테르니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소극적인 불개입의 입장을 묵살하기 위해 페르디난도 1세를 다

56) Candeloro, vol. I, pp.89-90.

57) *Ibid.*, pp.90-91.

58) Hobsbawm, *op. cit.*, pp.151-52.

59) 성 페트스부르크의 대사 세라카프리오라(Seracapiola)는 일단 충성서약서를 보낸 후, 국왕에게 그 준수여부를 물었다. 페르디난도 1세는 답장을 통해 비엔나와 빠리대사의 공식적인 문책은 자신의 본심이 아니라고 실토하였다(1820년 8월 9일). Romani, *op.cit.*, pp.105-07.

60) 트로파우 선언은 "만약 유럽동맹에 속해 있는 국가에서 혁명에 의한 정권의 교체가 발발한다면, 또 그들의 정치체제가 다른 국가들을 위협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정세가 정통주의적 질서와 이의 보전을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동맹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다"는 동맹국들간의 협약과 또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달성된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며" 이 체제의 전복을 위해 "처음에는 우호적인 성명으로, 만약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엔 무력수단을 사용한다"고 혁명에 대한 간섭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H. Hearder, *op. cit.*, p. 179.

61) 프랑스의 리셴뤼와 외상 빠스키에(Pasquier)는 빠리주재 나폴리왕국의 대사 카스텔치칼라로부터의 보고와 나폴리 신정부의 외상 캄포키아로의 상반된 견해를 동시에 청취하였다. 즉 전자는 국왕의 헌

음의 루비아나(Lubiana)회의에 초빙하여 그의 입장을 듣고 열강들의 대응을 결정하지는 수순을 밟았다 (1820. 11. 20).⁶²⁾

루비아나회의에 페르디난도 1세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로 논쟁이 벌어졌던 내각과 의회는 "회의에 참석하여 열강들에게 스페인헌법의 수용을 관철시키겠다"는 국왕의 다짐을 믿고 그의 출국을 허용하였다.⁶³⁾ 그러나 페르디난도 1세는 출국하자마자 태도를 바꾸었다. 뿐만 아니라 1821년 1월 루비아나회의에서 그는 열강들의 간섭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1821년 「유럽협력체제」의 나폴리혁명에 대한 무력개입은 명백하여 졌다.

반면, 나폴리의 혁명세력 중 온건파는 아직도 국왕 페르디난도 1세가 유럽열강들의 불모로 붙잡혀 있다고 생각할 만큼 국왕에 대한 희망과 미련을 갖고 있었다. 이제 혁명의 실패는 자명하였다. 반절대주의 세력은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되었고, 또 농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였을 때 대부분의 혁명 지도부는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농민대중의 실력행사를 무력으로 저지하였다. 혁명세력이 이렇게 사분오열되었던데 비해 페르디난도 1세와 유럽의 군주들은 일사불란하게 단결하였다. 1821년 2월 9일 오스트리아의 장군 프리모(Primo)가 포江河를 넘어 진격하였고, 3월 20일에는 카푸아(Capua)가 그리고 3월 23일에는 나폴리가 점령당함으로써 혁명은 실패로 끝났다.⁶⁴⁾

V. 맺음말

1820-21년 나폴리혁명은 절대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사회세력들의 연합전선의 결과였다. 그런데 혁명을 주도하고 또 혁명에 동조하였던 각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는 나폴레옹시대 때의 '부르조아적인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나폴리왕국의 경우, 1806년 봉건제폐지령과 토지재분배령에 따라 봉건제폐지와 국유지 및 공유지의 매각이 실현되었다. 전자는 영주권과 십일조, 그리고 봉건공납의 폐지로 이어져 귀족을 비롯한 특권계급이 타격을 받았으며, 후자는 교회 및 공동체에 속한 토지의 사유화로 이어져 특권계급은 물론 농민까지도 타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기이익을 관철시킨 사회세력은 다름아닌 농촌부르조아지인 갈란뚜오미니였다.

반면 갈란뚜오미니와 대조를 보인 사회세력은 인구의 약 90%를 점하고 있던 농민들이었다. 농민들은 전자를 통해 영주의 인신적 권리는 무상으로 폐지되었으나 물적인 권리는 유상폐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봉건부담으로부터의 실질적인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농민들은 실상가상으로 후자의 과정, 즉 공유

법수용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후자는 자발적인 조치라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그런데 9월 중에 빠리의 카스텔치칼라와 비엔나의 루포는 각각 페르디난도 1세와 비밀 서신연락을 통해 서로의 진의를 전달하고 있었다. Aberti, *op. cit.*, pp.336-37.

62) Francovich, *op. cit.*, p.475.

63) 스페인헌법에 따르면,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출국할 수 없었다. 그는 전적으로 혁명을 지지한다는 감언이설과 전쟁을 막기 위해 스페인헌법수용을 정당성을 열강들에게 역설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마침내 동의를 얻어 12월 14일 출국하였다. 이 때 그는 신민들을 속이기 위해 혁명지지를 상징하는 삼색 리본을 달고 떠났다. Romani, *op. cit.*, p.151

64) 루비아나회의 직후 총사령관 페페는 국민총동원령을 내려 민중들의 지지를 호소하였지만, 거부당하였다. 무라주의자들은 페페와 카라스코사가 중심이 되어 신정부를 사수하였는데 전자는 3월초 교황령까지 무모하게 진격하여 완패당하고 카라스코사와 콜레따는 나폴리를 방어선을 구축, 수성했으나 국

지의 사유화 과정을 통해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세 이래 누려오던 공동체적 용익권을 상실하였다.

비인체제가 확립되었을 때, 그리하여 복고왕정이 구체제로 회귀하고자 했을 때, 본능적인 거부감을 표출하였던 사회세력의 대표주자는 농촌부르조아지와 신분제를 부정하고 능력과 재능 위주의 사회를 갈망하였던 집단-대표적으로 무라주의자들을 들 수 있다-이었다. 이들은 모두 자유주의자들이었으며, 따라서 이들이 주도하였던 나폴리혁명은 자유주의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 성사 후의 농촌부르조아지가 주류를 이루었던 카르보네리아와 무라주의자들간의 분쟁-전자가 1812년 스페인헌법, 후자가 1814년 프랑스헌법의 요구라는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은 바로 이들 자유주의자들간의 갈등이었다.

한편 농민들은 '자유'를 넘어선 '평등'의 실현을 요구하였고, 그들은 카르보네리아가 '생존권 보장'의 요구를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혁명 성공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부르조아지는 무라주의자와 카르보네리아 혹은 온건파와 급진파로 양분되어 농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더욱이 농민 스스로가 토지균분법의 집행에 나서자 혁명정부는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이를 탄압하였다. 이런 점에서 나폴리혁명은 부르조아지와 농민대중간의 또는 자유와 평등의 대립도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절대주의 세력의 분열을 더욱 재촉하였던 것은 팔레르모에서 발발하였던 '시칠리아의 분리' 요구였다.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탈리아통일운동은 운동의 주체인 부르조아지가 농민대중의 에너지를 흡수할 프로그램, 즉 민중세력과의 동맹을 성사시킬 사회적 요구를 실현시킬 방안의 모색과 지역이기주의(Campanilismo)를 극복할 '하나의 이탈리아'라는 통일방안을 과제로 안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1830년대의 마찌니의 민족주의 이론과 「청년이탈리아」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⁵⁾

혁명 성공 후, 반절대주의세력들이 상호간의 갈등과 모순 때문에 분열하였던데 비해 유럽의 군주들은 혁명의 역제를 위해 굳게 연대하였다. 절대주의세력의 동맹은 프랑스혁명 이래 20여 년간의 전쟁을 통해 군주들이 전례없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던 결과였다. 그 하나는 군주들이 한 나라의 혁명은 전 유럽의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유럽의 동시혁명의 위협을 인식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회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폴리혁명에 대한 「유럽협력체제」의 "간섭의 원칙"은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혁명을 주도하였던 무라주의자들과 카르보네리아는 군주들의 혁명관의 변화를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폴리혁명의 경험을 통해 특히 카르보네리아는 혁명이 지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고립되는 한, 군주들의 동맹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그리하여 나폴리혁명 실패 이후의 비밀결사는 군주들의 신성동맹에 대응하여 프랑스 중심의 국제주의적인 연대를 모색하게 된다.

제적으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중적인 지지를 상실, 쉽게 함락당하였다. Candeloro, vol. II, pp. 97-98.

65) 마찌니의 통일운동에 관해서는 줄고, <1831년 중부이탈리아혁명과 [청년이탈리아]> 《부대사학》 15·16합집, (1992) pp.151-63 참조.

